

석탄 표면서 찾는 존재의 의미

2016-11-02

청년미술프로젝트 정승일展
6일까지 대구 엑스코
점·선·면·도형 등 활용한
드로잉 작품·사진·영상
관람객에 철학적 질문 던져



‘2016 대구아트스퀘어’ ‘청년 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정승일의 전시는 6일까지 대구엑스코에서 만날 수 있다.

빼곡하게 그은 세로줄과 가로줄 드로잉이 한 벽면에 나란히 걸려있고, 마주보는 벽면에는 갤러리 쇼윈도에 불투명 유산지를 붙이고 작가가 그 위에 자를 대고 선을 긋는 퍼포먼스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중앙 벽면에는 육면체 석탄 덩어리의 각 면을 촬영한 사진 6장이 걸려있다.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정승일의 작품들이다.

지난 1일 ‘2016 대구아트스퀘어’ 개막을 앞둔 부산스러운 행사장 분위기와 달리 ‘청년 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정승일의 작품이 전시된 부스는 고요했다. 개념

미술의 무게감 때문일까? 철학적인 담론이 가지는 깊이감과 진정성이 행사장의 부산스러움에 휘둘리기보다 오히려 제압하는 듯 했다.

정승일이 추구하는 미술사조는 개념미술에 가깝다. 형태에 할애하기보다 ‘존재의 근원’이라는 철학적 담론에 집중한다. 그런데 그에게는 좀 다른 면이 보인다. 개념적인 담론을 개념적으로 풀기보다 시각적인 틀 안에서 표현하려 하는 것. 이러한 태도의 바탕에는 미술의 본연인 시각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작가의 철학이 숨어있다.

작품만큼이나 진지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그가 작품 설명을 시작했다. “미술은 시각예술이다. 글이나 다른 그 무엇이 중심이 되는 것은 본질적인 미술이기보다 또 다른 미술로 본다. 나는 비록 개념적인 것을 탐구하더라도 표현은 시각에 집중하려 한다.”

정승일은 점이나 선, 면, 도형 등의 형상들을 통해 개념적인 주제를 시각화한다. 그에게 이 형태들은 ‘중간지대’로 인식된다. 그는 개념적인 주제들이 지나친 개념화로 흐르는 개연성을 지극히 시각적인 점, 선 등의 형태들로 제어한다. 이러한 중성적인 표상의 선택에는 작품과 세상을 보다 가깝게 이어주기 위한 작가의 속깊은 의도가 숨어있다.

그는 “특정 대상을 보고, 탐구하고, 해석해서 표현하는 것이 작품”이라며 “미술의 역할은 내가 대상을 보고 느꼈던 호기심을 관람객도 느끼고, 그들 나름의 해석을 더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작품은 누군가와 소통을 전제로 한다. 개념미술을 하는 내 입장에서는 표현까지 너무 개념적으로 풀면 관람객이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고 너무 시각적으로 흐르면 개념이 흩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시각과 내면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중간지대’가 필요하다.”

정승일은 작품을 거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실제로 거울을 작품에 활용하기도 한다. 왜 거울이었을까? 그에게 거울은 상을 왜곡하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집중하게 하는 명상 같은 존재로 다가오기도 한다. 정승일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작품도 거울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대한다.

“내 예술의 주제는 끊임없이 나를 찾아가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과정이다. 작품은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 같은 존재다. 내가 그랬듯, 내 작품 또한 누군가에게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를 희망한다.”

전시장에 걸린 육면체의 석탄덩어리를 찍은 6장의 사진은 흡사 인공위성에서 유명산을 찍은 것처럼 보인다. 석탄덩어리에 불과한 하잘 것 없는 물성을 에베레스트 산처럼 거대하게 왜곡했다. 이 의도적인 행위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풀어서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와 일맥상통한다. ‘존재’라는 무거운 주제를 역설로 가볍게 뛰어넘는 것. 때로는 역설이 더 뜨겁다는 것을 그 역시 모를 리 없음이다.

“내 성격은 진지한 편이다. 내 예술의 주제 또한 진지하다. 하나가 진지하면 하나는 편하게 풀어야 한다. 소통을 전제로 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한다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예술가의 임무가 아니겠나?”

독일 뮌헨 국립조형예술대학 조각전공 마이스터쉴러 및 석사를 졸업하고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는 정승일의 대구엑스코 '청년 미술프로젝트' 전시는 6일까지.

황인옥기자 hio@idaegu.co.kr